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5면)

“집행부, 구의회 존중하는 동반자 인식전환 있어야”



김안나 송파구의원 (삼전, 잠실3동)

김안나 송파구의원(삼전, 잠실3동)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의회는 구청장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가 아니며, 존중하는 동반자로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10대 송파구의회 개원 기념식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그런데 구청장은 축사를 통

해 구의회와 구의원을 존중해야 할 동반자가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야 하는 훈계의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송파구의회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해 정당한 우려를 표하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으나 인사를 강행,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소통과 신뢰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너

졌다”며, “송파구의회는 구청장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안나 의원은 “송파구의회는 65만 송파구민이 부여한 준엄한 권한으로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며 “구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의회를 외면하는 구청장을 의회가 좌시한다면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의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인 만큼 구청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